

開發經濟學의 過去, 現在 및 展望

權 鎭 均*

<目 次>

- I. 序 論
- II. 開發經濟學의 黃金期: 1950년대와 1960년대
- III. 1970년대의 認識의 變化
- IV. 開發經濟學의 過去와 現在의 評價
- V. 開發經濟學의 未來를 위한 提案

I. 序 論

經濟發展은 經濟的, 政治的, 그리고 人口統計學的 그리고 文化的 要因들 모두가 成長과 變化를 일으키도록 상호작용하는 복잡한 과정을 포함한다. 開發經濟學은 低開發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되어지는, 制限된 數의 變數들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하여 이러한 복잡성을 제거하려고 노력해왔다.

開發經濟學은 2次世界大戰後의 새로운 현상이다. 여러 要因들이 이 새로운 學問分野의 탄생에 유리하게 했다: 첫째로, 처음으로 그들의 欲求를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는 낮은 所得水準을 가진 많은 신생독립국가들의 출현; 둘째로, 선진공업국가들과 경제학자들 쪽에서의 이들 신생독립국가들의 욕구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 셋째로, 케인지언革命의 성공과 正統의 新古典派理論의 일시적인 퇴조이다. 케인지언革命은 두 가지 측면에서 發展研究의 탄생을 촉진했다: (a) 그것은 신생독립국가들의 정책수립자에게 政府가 貧困에 고통받는 대중을 위해서 生活水準을 향상시키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어슴프레한 희망을 주었다. (b) 케인즈학파가 正統의 新古典派理論으로부터 이탈한 것은 다른 종류의 經濟는 다른 종류의 經

* 노던일리노이大學校 經濟學科. 이 論文은 韓國經濟學會의 「國際韓國人經濟學者學術大會」(1984. 8. 20~21, 서울)에서 「韓國의 經濟發展과 開發經濟學」이라는 全體會議 主題下에 英文으로 발표되었던 것을 번역한 것이다. 필자는 로머스(Prem Laumas)와 김(Y.C. Kim)의 論評에서 도움을 받았다.

經濟學을 요구한다는 일반적인 命題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이것 역시 低開發經濟를 연구할 때에는 低開發國家들의 독특한 특징으로 말미암아 正統的인 分析을 변형시킬 것이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그야말로 開發經濟學의 黃金期였고, 經濟學 전반에 걸친 중요한 理論的 革新과 더불어 활발한 論爭이 벌어졌던 時期였다. 이 기간 동안에는 무한한 樂觀論이 팽배했고 야심에 찬 目標가 세워졌다. 그런데 갑자기 70년대와 80년대에 들어서면서 開發經濟學은 正體性的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위기의 정도는 최근에 이르러 더욱 심각해져서 開發經濟學을 하는 學者들 스스로 이 學問分野가 계속해서 生動力있는 學問分野로 잔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크게 의심하게 되었다. 이미 여러 經濟學者들이 開發經濟學은 퇴락하고 말았다고 쓰고 있는 것이다.¹⁾

開發經濟學의 최근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케인지언 經濟學의 쇠퇴와 동시에 일어났으며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新古典派經濟學者와 新마르크스主義者の 復活 및 그들사이의 믿기지 않는 동맹이 일어났음과 대체로 때를 같이한다는 것에 주목해 본다는 것은 흥미있는 일이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손이 변덕스럽긴 하나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정부의 손길보다 더 강력하다고 주장한다. 新古典派經濟學者들은 “非效率的 資源配分”에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新마르크스主義者들은 舊國際經濟秩序에서의 “從屬”關係를 비난한다.

이 論文에서 이 分野에서의 모든 理論的인 發展을 포괄적으로 概觀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 중 몇 가지에 대해서만 논의할 것이다.

이 研究의 目的은 다음과 같다. 첫째, 50년대와 60년대에 일어났던 開發經濟學에 있어서 중요한 革新中에서 몇 가지를 개관하는 것이고, 둘째로 70년대의 이 分野 내에서 생긴 認識의 變化를 조사하는 것이고, 셋째로 다양한 主張과 反駁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넷째로 이 學問分野를 현재의 침체상태로부터 구해내기 위한 최근의 몇 가지 노력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이 學問分野의 앞날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II. 開發經濟學의 黃金期 : 1950년대와 1960년대

우선 開發經濟學의 몇몇 初期 理論들을 고찰하는 것부터 논의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것들이 後期的 理論들과 아주 다르며 여전히 많은 眞理를 포함하고 있기 때

1) Hirschman[17], pp. 1-24와 Seers[41], pp. 707-717 참조.
Papanek[35], pp. 17-25참조.

문에 이러한 模型들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後期의 理論들은 대체로 상당히 단조롭고 세속적인 반면에 이 模型들은 대담한 精神과 야심적인 目的意識을 가지고 있는 점은 W. Baumol[5]의 말을 빌리면 “雄대한 動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었다.

50년대와 60년에 있어서 發展理論들의 주된 쏠점은 빠른 資本蓄積과 농촌지역에서의 不完全雇傭된 人的資源의 動員을 통한 産業化였다. 스미스(Smith), 리카아도(Ricardo) 그리고 다른 학자들의 古典的 成長模型은 보다 명백하게 정의된 형태로 루이스(Arthur Lewis)의 著作에서 지극히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의 雄대한 思考는 1954년에 발표된 “無制限의인 勞動供給下에서의 經濟發展”이란 그의 論文을 통해 전개되었다. 학문의 全分野가 단 한 편의 論文에 의해 것처럼 支配되는 경우는 다른 例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루이스(Lewis)는 그의 模型은 古典派的 成長模型을 새로이 쓴 것으로 생각하였다.²⁾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의 模型은 古典派 模型보다 더 野心的이며 動態的이다. 초기 英國 經濟學者들의 動學分析에서의 기본적인 主題는 進步狀態에서 定常狀態로의 經濟의 發展이었다. 예를 들면, 리카아도의 模型에서는 地代의 과도한 상승에 의해 沈滯가 초래되고, 마르크스의 模型에서는 부적절한 投資에 기인하여 끊임없이 증가하는 技術的 失業에 의해 경제는 沈滯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루이스의 模型에서는, 유리한 조건이 주어지면 전통적 농업이 지배적인 “生存”部門에서의 人的資源의 剩餘가 近代의 즉 “資本家”部門으로 흡수된다는 반대 방향으로의 過程을 내포하고 있다.

루이스의 模型은 두 가지 측면에서 古典派的이다. 그의 模型은 非熟練勞動者에 대한 實質賃金은 社會的 慣習에 의해 결정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賃金은 소비되고 利潤만이 貯蓄의 유일한 根源이라고 가정한다.

資本家は 利潤創出 目的을 위해서 賃金勞動者를 고용한다. 그래서 雇傭은 최후로追加되는 勞動者의 生産性이 賃金率과 일치하는 점에 이르기까지만 이루어진다. 資本家部門에서 外生的으로 주어진 實質賃金은 傳統的 部門에서 얻을 수 있는 所得을 초과하고, 그래서 前者에서의 雇傭은 勞動의 供給에 의해서가 아니라, 勞動에 대한 需要에 의해서 제약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그는 “無制限 勞動供給”이란 用語를 쓴 것이다. 利潤이 貯蓄의 유일한 根源이기 때문에, 經濟成長率은 利潤率과 利潤中에서의 貯蓄性向에 의해 결정된다.

일단 비축된 剩餘勞動이 고갈되면 同一한 賃金率이, 統合된 市場에서 需要와 供給에 의해서 內生的으로 결정된다. 이 때, 경제는 發展된 상태에 있게 되고 비로소

2) Lewis[26] 참조. 루이스의 공헌에 대한 뛰어난 평가에 대해서는 Findlany[14]참조.

新古典派的 接近法이 적용가능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두 개의 模型, 즉 루이스의 古典派 模型과 新古典派 模型은 한 단계가 지나면 결국은 또 다른 단계가 온다는 점에서 相互補完的이라 할 수 있다.

Rosenstein Rodan[36], Mandelbaum[30], Hans Singer[43], Ragnar Nurkse[32]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低雇傭”의 현상에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또한 “貧困의 惡循環”으로부터의 탈피를 위해서 資本形成에 있어서의 “big push”에 대한 필요에 대해서도 커다란 관심을 불러 일으켰던 시기에, 루이스의 첫번째 論文이 나왔던 것이다.³⁾

英國을 포함하는 많은 국가들의 經濟史는 루이스의 模型과 일치했다. 19세기의 前半部에 즉, 産業革命 즈음의 古典派의 時期에, 여분의 農業勞動者들은 一定한 賃金率을 받으며 製造業, 鑛業, 서어비스업으로 흘러 들어갔고, 그래서 높은 수준으로 利潤, 資本形成, 生産量의 成長을 유지시켰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비축된 剩餘勞動이 고갈되면서 1873년까지 호황은 賃金의 上昇을 수반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의 유럽대륙에서, 빠른 팽창은 여러 地中海沿岸 國家들과 다른 지역에서 흘러들어오는 勞動의 無制限 供給에 의해 지탱되었다.⁴⁾

최근의 횡단면 자료는 역시 이 추론이 옳음을 증명한다. 1960~80년의 기간동안 成長率은 1人當所得水準을 기준으로 비교해 볼 때 逆의 U字 형태⁵⁾를 보여주고 있다. 즉 방글라데시, 버마, 그리고 네팔과 같은 매우 가난한 국가들에 있어서는 낮은 成長을 보였고; 브라질, 한국 그리고 타이완과 같은 中位圈所得 國家들에 있어서는 평균 7%의 매우 높은 成長率을; 독일과 미국과 같은 부유한 국가에 있어서는 약 3~4%의 成長을 보여주었던 것이다.⁶⁾

루이스의 模型이 지배적이었던 했으나 開發經濟學의 黃金期동안 경제전문가 특히 정책수립자들의 상상력을 사로잡았던 유일한 이론은 아니었다. 로스토우(Rostow)의 “離陸”理論이 1960년에 들어서면서 등장하게 되었다. 로스토우의 분석 틀에서는, 일단 전통적 생활의 靜態的 段階가 교란되어지면 이후에 사회는 成長을 위한 準備, 離陸, 成熟, 高度의 大衆消費와 같은 段階들을 경험한다. 그는 다섯 개의 분리된 段階의 존재를 상정했는데 그 중 中心的인 것은 國內貯蓄率을 자립적인 목표수준

3) 표준적인 開發經濟學의 主流와는 다른 입장에 선 新古典派學者 중에서 저명한 학자들은 T.W. Schultz[40]와 Peter Bauer[4]이다. 그들은 방해되지 않는 市場體系가 수행할 수 있는 自動調整의 유익성을 보다 확신했고, 政府의 개입을 불신하였다.

4) 헤릭(Herrick)과 킨들버거(Kindleberger)(1983)참조.

5) 이 分野의 개척적인 업적은 Kuznets[19]의 것이다. 보다 최근의 문헌에 대해서는 Fields[13], pp.60-71 참조.

6) OECD[34], pp.254-6.

까지 증가시킴으로써 도달되는 그 유명한 “離陸” 단계였던 것이다. 로스토우 模型의 重點은 증가된 수준의 貯蓄과 投資로써 가능하게 된 資本蓄積이었다. 成長이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나타난다는 원리가 매우 만족스러웠고 그래서 세계각처에서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다.

Rostow의 過程은 그것의 분석이 階級鬭爭, 증가하는 失業, 떨어지는 利潤率 등 마르크스主義者의 분석도구에 의존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非마르크스主義적이었다.

그러나 投資를 어떻게 지속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이러한 發展理論들은 곧 또 다른 관련된 문제, 즉 投資를 얼마만큼 할 것인가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수립에 있어서의 주요한 진전은 예기치 않았던 원천에서 즉, 헤로드—도마(Harrod-Domar)模型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模型에서, 成長率은 平均貯蓄率을 限界資本產出比로 나눈 것과 같아진다.

유명한 이 모형의 含意는 극적이며 낙관적인 것이었다. 이 公式에 따르면 成長은 投資에 충당된 資源을 확대시키거나, 資本의 生産性을 증가시킴으로써 擴大될 수 있다. 헤로드—도마 模型은 비록 粗野하게나마 개발계획에 있어서의 投資, 貯蓄率 그리고 成長率간의 상호일관성을 점검하는 유용한 방법을 제공하였다. 이 모형에서 바로 끌어낼 수 있는 含意는 필요한 國內投資와 가능한 國內貯蓄 사이의 차이를 메꿀 수 있는 外國援助의 결정적인 중요성이었다. 이것이 1950년대와 1960년대 동안에 많은 發展政策計劃을 뒷받침했던 중요한 정책방향이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업적은 發展過程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였다. 이러한 아이디어의 얼마간은 부분적으로는 社會主義計劃의 성공으로부터 나왔고, 부분적으로는 不完全한 市場調整에 대해서 그 당시 널리 퍼져있던 생각으로부터 나왔다.⁷⁾

만약에 초기의 開發經濟學者들의 견해를 모두 樂觀的인 것으로 묘사한다면 그것은 정확하지 않은 표현일 것이다. 그들은 최소한 하나의 중요한 정책문제에 대해서 결코 낙관적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國際貿易과 관련된 것이었다. 그들은 Ragnar Nurkse([32], [33])와 Arthur Lewis([24], [25], [27])와 같이 무역이 “成長의 推進力”이 되리라고 기대될 수 없고 貿易機會는 너무나 제한되어 있어서 開發戰略은 점차로 輸入代替 등과 같은 內部指向의인 것들로 방향전환해야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마도 이것은 大恐慌을 살아온 그들의 경험에 기인한 것인지도 모른다.

역사적인 시각에서 보면, 개발도상국가에서 달성했던 전반적인 經濟成長率은 실로 주목할만한 것이었다. 1960년대 동안 대개의 第3世界國家들에 의해 성취된 그

7) Tinbergen[48], Lewis[26], Rosenstein-Rodan[36] 그리고 Chenery[10]참조.

리고 우연히 UN의 1차개발 10개년계획의 목표이기도 했던, 연평균 5%의 GNP 증가는 19세기 서부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성취된 成長率의 약 2배에 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놀라운 成長은 성공적인 經濟發展, 나아가서는 發展理論의 성과를 증명해주는 것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1960년대말까지 1人當 GNP의 成長에 의해 측정된 “發展”은 위급한 貧困의 근본적인 해소라는 관점에서 보면, 보통사람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있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

III. 70년대의 認識의 變化

적절하지 못한 評일지 모르지만, 사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a) 發展의 結實이 빠르게 貧困層으로 흘러들어가고, (b) 總體的 生産量이 작을 때에는, 政策은 최소한 당분간은 그것의 크기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향해야 하며, (c) 또는 훨씬 더 커진 國民總生産을 再分配하기 위해서 적절한 정부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기본적인 가정하에서 단지 成長을 지향하는 것으로서 특징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 있어서 成長은 近代의이고, 잘 組織되고, 都市에 집중된 工業部門이란 좁은 區域에 국한된 채 있었다는 점이 점차로 분명해졌다. 그리고 정부는 흔히 점증하는 不平等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서 租稅政策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었다는 점도 점차 분명해졌다. 결과적으로 최근 수년동안 많은 사람들은 “先成長 後分配”라는 정책을 수용하기를 점차 거부하게 됨으로써 전통적인 浸透假說(Trickle-down hypothesis)에 대한 漸增하는 懷疑를 나타내게 되었다. 동시에 보다 더 큰 平等性을 가져오면서 經濟가 成長한다는 黃金期의 꿈은 몇 개의 중요한 例外를 제외하고는 크게 후퇴한 것으로 보였다. 分配의 특징을 무시했던 成長爲主의 접근법에 의해 더욱 악화된 貧困層의 문제는 1973년 世界銀行(World Bank)의 이사회에서 행한 맥나마라(Robert MacNamara)의 연설에서 언급된 바 있다.

따라서 어떤 조건하에서 成長과 더불어 再分配가 가능한가 그리고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결핍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자성으로 관심이 이동함을 볼 수 있었다. 이리하여 “基本的인 人間欲求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목표가 좁혀졌다.⁸⁾

8) 基本的 欲求에 대한 문헌은 현재 광범위하다. Streeten外 [46]과 ILO[18] 참조. 이 기본적인 접근에 대한 비평은 T.N. Srinivasan[44] 참조.

浸透假說의 비판자들이 점차 목소리를 드높여가던 때에 의견을 달리하는 또 하나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들은 發展問題의 再定義를 요구하고 나섰다.⁹⁾ 그들은 그 문제를 내부적 혹은 국내적인 맥락에서가 아니라, 국제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볼 것을 요구했다. 그들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가간 관계의 展開를 강조했다. 新마르크스主義者들 뿐만 아니라 Celso Furtado[16], Andre Gunder Frank[15], Theotonio Dos Santos[39], Fernando Henrique Cardoso([7], [8]) 등과 같은 非마르크스主義 학자들도 低開發과 관련된 어려움 중 많은 부분이 선진국의 착취정책에 기인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從屬”이란 低開發國의 경제적 운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이 나라 밖의 어떤 제도에 의해 결정된 정책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논의가 갖는 단순한 含意는 개발도상국가들은 國際體系와 관계를 끊거나, 國際體系로부터 스스로를 고립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급진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外國貿易, 技術, 이데올로기의 파괴적인 영향에서 격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從屬理論이 전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많은 발전문제 분석가들은 그와 같은 것은 좀 심한 경우이고, 歷史는 때때로 왜곡된다고 믿고 있다. 보다 객관적으로 본다면 先進工業經濟는 보다 더 빠르고 더 좋은 發展에 대한 기회를 개발도상국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다. 先進國들이 종종 부정적인 충격을 준다는 것 역시 사실이다.

어쨌든 보다 효율적으로 국제경제의 관심사에 대한 의사결정에 참여하기 위한 政治的 欲望과 더불어 이러한 류의 經濟的 考慮는 富國과 貧國사이의 새로운 구조적인 관계 즉 新國際經濟秩序에 대한 요구로 표현되는 새로이 등장하는 이데올로기의 구실이 되었던 것이다.

舊國際經濟秩序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더욱 커짐과 대략 동일한 시기에, 開發經濟學은 또 다른 戰線 즉 新古典派 陣營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다. 新古典派經濟學의 再擡頭는 두 가지 점에서 開發經濟學에 대해선 불리한 것이었다. 첫째로, 新古典派經濟學者의 市場機構에 대한 옹호는 鐵拳政治家와 그에 추종하는 경제학자들에 의해 立案된 수많은 거대한 發展計劃이 失敗로 돌아감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정당화되었다. 둘째로, 貿易을 成長의 推進力로 이용했던 日本, 韓國, 타이완, 홍콩 그리고 싱가포르의 성공사례는 초기의 內部指向的 計劃概念과 保護主義的 견해를 거의 없애버리는 역할을 했던 것이다.

9) Streeten[45]은 發展에 대한 思考에 있어서의 認識의 變化를 뛰어난게 다루었다.

IV. 開發經濟學의 過去와 現在의 評價

初期의 開發理論에 대한 궁극적인 환멸과 이에 따라 70년대에 들어서면서 생긴 開發問題와 관련한 인식의 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초기이론들은 복잡한 발전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너무 단순하고 낙관적이다; (2) 浸透效果假說에 근거를 둔 舊理論은 發展의 分配的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다; (3) 그리고 現存하는 증거로 미루어 보면 經濟成長의 結實이 低所得層으로 반드시 흘러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약점들 때문에 마르크스主義 經濟學者 뿐 아니라, 非마르크스主義 經濟學者까지도 發展問題에 관한 새로운 定義를 요구하게 되었다.

(1) 그들은 1人當 國民所得의 成長에서 所得의 公平한 分配로 다시 관심의 방향을 돌렸다; (2) 貧困層의 基本的 欲求에 더 관심을 기울였다; (3) 低開發國이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貧國의 低開發을 야기시키고 유지시켜 온 國際的 貧富體系라고 보았다. 貧國들의 발전을 저해한 것은 富國들인 것이다; (4) 이와 같이 착취적인 낡은 國際體系를 수정하기 위하여, 그들은 新國際經濟秩序를 요구했다.

다음에는 근거없는 思考로부터 事實을 가려내기 위하여 이러한 主張의 各각을 검토하고자 한다.

A. 무엇보다도, 50년대와 60년대의 經濟發展이나 그 이후에 석유파동을 야기시킨 오펙(OPEC)의 행동에 따른 세계경제의 침체는 경제발전의 지극히 복잡한 성격인 냉엄한 현실을 깨닫게 했다. 그러나 舊理論들이 단순하고 낙관적이긴 할지 몰라도 그래도 많은 眞理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開發經濟學은 經濟成長, 특히 產業化에 대한 의도적인 계획이 거의 없었고, 資本蓄積率도 지극히 낮은 수준일 때 탄생했다. 70년대와 80년대의 상황은 다르며, 그래서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定義와 강조점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 당시 제안되었던 현명한 전략들의 타당성이 완전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Lewis[28], Sen[42], Bhagwati[6] 그리고 다른 학자들이 주장했던 바와 같이, 전통적인 開發經濟學이 강조했던 광범위한 政策主題는 아직도 適合性을 가지고 있다. 사실 成長이란 發展과는 다른 문제이다. 그러나 經濟成長이 經濟發展過程의 중요한 측면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반복을 하는 느낌이 있지만 몇 가지 역사적 사실을 다시 얘기해 보기로 하자. 간

단히 말하면, 2차대전후의 기간에 개발도상국이 기록했던 4%를 초과하는 經濟成長率は 産業革命期間동안 기록했던 연간 1~2%의 成長率을 훨씬 상회하는 것이었다. 더우기, 經濟成長率이 극히 미미했던 産業革命 이전 기간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成果는 더욱 괄목할만한 것이다.

지난 4반세기 동안의 괄목할만한 經濟成長은 높은 기술흡수율, 국내저축의 증가 그리고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투자를 가능하게 했던 외국 원조의 유입 등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만하다.¹⁰⁾

B. 그러나 우리를 실망시킨 주요한 점은 의심할 바 없이 成長과 貧困의 관계이다.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成長이 貧困에 미치는 영향은 느리고 또 모호한 과정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戰後의 발전 경험(절대적인)成長은 貧困을 감소시킨다는 명제를 완전히 무효화시킨다는 견해에 대해 나는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최근에 그러한 주장이 문헌에서 상투어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그들의 주장이 확실한 경험적 근거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점을 관찰하면 충분하다.

Kuznets([19], [20])는 所得分配에 관한 선구적인 저작에서 1人當 國民所得水準이 그 나라의 所得不平等度を 결정하는 主要素라는 命題를 내놓았다. 兩者의 관계에 대한 특성은 逆의 U字假說로 알려져 있는 바, 經濟發展의 초기단계에서는 소득 불평등 정도가 증가하여, 그 후 극도로 큰 상태에 도달하고, 후기에 접어들면 감소한다는 假說이다. 逆의 U字 假說을 경험적으로 실증하려는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가간 자료를 이용한 최근의 결과가 세계은행의 Chenery와 Syrquin[11], Ahluwalia[2] 그리고 ILO의 Lydall[18]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相對的 不平等의 양상에 대해 그들이 증거로 제시한 것은 많은 開發經濟學者들을 불편하게 하는 성질의 것이었다. 그리고 成長과 所得衡平간에 있을 수 있는 逆의 상관관계에 대해 상당히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추론에 대해서 두 가지 명백한 문제점이 있다. 첫째, 결론이 시간에 따른 역사적 추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횡단면 분석에 근거했다는 점이다. 둘째, 개별국가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國家群의 평균치를 이용했다는 점이다.

횡단면 분석에서도조차 逆의 U字形태가 불가피한 것이라고 간주하기 전에, 資料가 逆의 U字 假說에 적합한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Fields[13]는 1980년에 國家群 資料가 아닌 個別國家 資料를 이용해서 연구했다. 다

10) David Morawetz[31]는 25년간의 (1950~75)의 經濟發展의 성과를 모으고 분석했다.

重回歸分析을 이용해서 첫째로, 所得不平等과 所得水準간의 관계에 逆의 U字 假說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둘째로, 所得不平等度의 시간에 따른 변화에 어떤 특정한 양상이 불가피한 것인가를 고찰해 보았다. 그의 결과는 소득분배 상태가 좋아지기 전에 반드시 나빠져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이고 있다.

所得不平等도와 1人當所得간의 관계에 관련한 힐즈의 연구에 의하면 所得不平等度の 국가간 차이가 소득수준에 의해서는 기껏해야 1/4정도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이는 逆의 U字 形態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더우기, 그의 연구결과는 Fei-Ranis[12], Kuznets[19] 그리고 Adelman과 Morris[1] 등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들의 주장은 所得分配은 經濟發展水準만큼 혹은 그보다도 더욱 큰 정도로 한 國家의 경제발전 형태와 채택되는 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Bhagwati[6] 역시 현재 可用한 증거에 입각하여 판단해 보면 逆의 U字 형태이거나, 低所得層 20%의 1人當所得이 감소한다는 것 같은 결과가 주요한 추세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확실히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대체적인 의견은 經濟成長의 초기에서 資産의 보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 고안된 적절한 公共政策에 의해 相對的 所得分配이 나빠지는 것을 피할 수 있다는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대만, 인도에서의 경험은 소득이 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成長優先接近을 보완하는 지혜를 잘 보여주고 있다.¹¹⁾

C. 經濟成長과 所得再分配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실패한 대표적인 예는 라틴아메리카의 경우이다. 브라질이나 멕시코같은 나라는 높은 經濟成長을 이룩했지만, 所得分配은 나빠졌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우는 대체로 백인 개척자와 다수의 토착민 사이의 100여년간 지속된 인종장벽이 經濟統合에 엄청난 장애가 되는 특별한 경우이다. 이 곳은 社會的으로 兩分된 것이 經濟的으로도 兩分되는 현상을 더욱 강화시키는 곳이다. 저소득층의 사회경제적 상황은 마르크스主義者로 하여금 폭력적인 革命을 예측하게 하는 좋은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점이 從屬—低開發, 輸入代替—國際經濟體系와의 斷絶 등의 과격한 견해가 라틴아메리카 학자들간에서 널리 퍼졌던 이유이다.

근본적인 마르크스主義의 문제의식은 라틴아메리카의 상황이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계급갈등, 착취, 그리고 자본주의 과정내부의 고유한 긴장등에 있다. 正

11) Chenery外 [9]참조.

統的인 新古典主義의 代案으로서 과격파이론과 마르크스주의이론이 構造的 不均衡理論에 추가되었다. 과격파 경제학이 매력울 끈 것은 대대적인 개혁과 혁명의 옹호, 그리고 국내외적으로 貧困層에 대해 보이는 명백한 관심 등이 입증해 주는 바와 같이 그것이 명백히 規範的 性格을 가졌다는 점에 크게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이러한 시점에 있는 라틴아메리카를 생각할 때 과격한 혁명이 먼저 기존의 사회경제적 질서를 대체하게 되고, 나중에 사회경제적 질서의 대대적인 재구성이 완성되면, 자본주의적 발전양식에 장점을 찾게 되는 “中國型 路線”을 라틴아메리카가 따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D. 이제 다른 곳에서 느린 속도의 成長을 야기시킨 要因들을 밝혀보기로 하자.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낮은 수준에서 (연평균 3%이하) 成長을 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은 몇 가지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다.

(a) 적당하지 않은 降雨量은 農業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쳤다. (b) 부족한 灌溉施設로 농업부문의 잉여가 너무 작아 成長에 기여하지 못하게 했다. (c) 빈번한 내부적 政治葛藤은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내국인 자신들도 投資할 수 있는 환경을 창출하지 못하게 했다. (d) 70년대의 세계적인 景氣沈滯와 그에 따른 외국인원의 삭감은 經濟成長을 정체시켰다. (e) 인도와 다른 나라들에서의 人口增加는 결정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f) 몇몇 국가들에 있어 초기의 後進性은 産業化를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요구하였다.

E. 舊接近方法에 대해 이같이 변명을 늘어놓았다면 과연 그것들이 모두 옳다고 내가 말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지난 4반세기동안에 나타난 主張과 反駁들 중에서,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관심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앞에서의 나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첫번째 가장 중요한 문제는 成長과 分配를 통합한 模型이 없다는 것이다. 두번째 문제는 70년대에 등장한 理論은 折衷主義的 경향이 너무 짙다는 것이다. 70년대에 나온 정책처방은 너무 많고 서로 연관성이 없어서 응집력있는 學問分野로서의 開發經濟學을 위협하고 있다.

成長과 所得再分配 문제를 함께 다루는 이론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는 그것 만으로도 대단한 작업이다. 한편 所得分配를 수행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의 간섭이다. 成長과 再分配가 결합된 接近法에서 極大化하고자 하는 社會厚生函數는 貧困層의 厚生에 더 큰 중점을 두는 厚生指標를 사용해야 할 것이다. 생활수준을 측정하는 1人當 GNP나 所得分配를 측정하는 지니(Gini)계수 등 전통적인 척도는 생활수준과 所得不平等度를 동시에 고려하지는 못한다. 반면, 이 두가지 요소를 통합하는 후생지표는 경제학자들이 대체로 싫어하는 價值判斷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經濟發展 問題에 成長과 所得分配을 동시에 접근하는 방식은 그러한 가치판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¹²⁾ 이러한 접근법 역시 貧困層 所得決定要因과 상이한 집단간의 所得사이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요구한다. 소득간의 관계는 정책에 대한 중요한 제약을 가하는 것이므로 이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예를 들면, 부유층으로부터 빈곤층으로의 所得移轉은 부유층에 의한 貯蓄 및 資本蓄積을 감소시킬 수도 있으므로, 이는 장기적으로 貧困層의 所得을 낮추는 결과일 수도 있는 것이다. Ahluwalia[2]가 주장했던 바와 같이, 이러한 상호작용은 成長과 所得分配의 統合을 요구한다.¹³⁾

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견해들이 촛점이 없다고 하는 두번째 문제에 관심을 돌려보자. 이들이 分配問題에 보다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第3世界의 상이한 집단들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모든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인구통계학적 그리고 문화적 요인들을 연결시키고 동시에 끌고 갈 수 있는 중심적인 힘을 찾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여러 특수이론들을 단지 결합하는 것만으로 통일된 研究主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한다. 허쉬만(Hirschman)의 표현을 빌리면, 새로운 견해의 신봉자들은 암묵적인 파레토 最適의 가정에 기초하여 움직여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배관수리공사나 교통정리의 개선처럼 경제학자들의 技術的 노력은 한 부문에서는 개선을 가져오고 다른 부문에서는 최소한 불변상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전체적으로 보면 좋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經濟發展政策은 效率改善에만 배타적으로 몰두하는 技術的 작업으로 사실상 퇴보하였던 것이다.

V. 開發經濟學의 未來를 위한 提案

開發經濟學을 전공하는 경제학자들은 이제 다음과 같은 점에 의문을 가질 것이다.

(1) 開發經濟學이 경제적 低開發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2) 主流經濟學과는 분리된 독립된 분야로서 開發經濟學이 필요한가? 만일 그렇다면 이 兩者사이에 메꿀 수 없는 차이가 존재하는가? 지금까지의 서술에 비추어 볼 때,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매우 긍정적이다. 즉, 일정한

12) Kwon[23], Atkinson[3]의 不平等指數에 기초한 所得分配 뿐만 아니라 所得水準까지도 統合하는 社會厚生指標들을 제안했다.

13) 成長과 再分配의 문제가 반드시 國民經濟 內部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이 문제의 부분적인 해결로서 國際的 資源移轉을 사용하는 가능성은 Chenery外[9] 그리고 Kwon [22]에 의해 논의되었다.

소득수준까지는(예를 들면, 1人當所得이 2,000달러가 되기까지는) 開發經濟學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일정수준 이상이 되면, 케인즈學派와 新古典派를 종합한 이론이 중요한 역할을 이어받아야 할 것이다. 두번째 문제에 관해서는, 開發經濟學과 發展後の 經濟學 사이에 매꿀 수 없는 차이를 발견하게 될 것 같지는 않으며, 이것은 소아과의사가 노인병에 관한 의학이 관련없는 분야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다고 주장한 루이스의 의견에 동감이다. 지금까지의 主張과 反駁에서 볼 때, 開發經濟學이 未來에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가 문제된다.

첫째, 지난 4반세기의 경제발전 경험은 개발도상국의 모형을 세울 때 꼭 고려되어야 하는 개발도상경제와 개발이 잘된 경제를 구별짓는 몇 가지의 특징적 사실을 가르쳐 줬다. 둘째, 모형을 세울때 일관된 체계가 서 있지 않은 주제들을 논리적으로 연결된 학문분야에 통합시키면서도 개별적인 맥락하에서 조사연구할 때 발생하는 문제들을 다루도록 해야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접근이 단일체계가 아닌 多元的인 理論이라는 점에서 50년대나 60년대의 이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시에, 몇몇 初期 模型들은 이러한 다원적인 체계 안에서 중심적인 구성요소로서 적절한 자기 위치를 찾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또한 새로운 접근법은, 중심과제가 없었고 상호 관련없는 主題들이 지배적이었던 70년대의 이론이나 허울 좋은 말들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교훈들을 가장 잘 통합한 최근의 접근법은 1979년에 테일러(Lance Taylor)가 “개발도상국을 위한 巨視模型”(Macro-Models for Developing Country)이라고 제목을 붙인 그의 저서에서 볼 수 있다. 그의 巨視經濟學의 接近法은, 한편으로는 農業과 産業간의 역사적으로 중요한 關係가, 다른 한편으로는 所得分配問題가 그의 접근법에서 독특한 중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케인즈學派의 巨視經濟接近方式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의 모형은 物價變化, 平價切下, 인플레이션을 통한 財政調達, 國際收支의 충격 등이 所得分配에 미치는 효과를 중심과제로 다루고 있으며, 중요한 경제행위자 집단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

그는 먼저 短期模型을, 다음에 中・長期模型, 그리고 응용문제를 제시함으로써 그의 접근방법을 보이고 있다. 사회계정행렬에 근거한 模型과 利潤에 근거한 가격설정모형(Mark-up pricing model)이 단기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다. 헤로드—도마, 新古典學派, 그리고 케임브리지의 成長模型, 펠드만—마할라노비스(Feldman-Mahalanobis) 그리고 투—갭 고정가격모형(two-gap fixed price models), 세 개의 대립되는 인플레이션模型, 리카디안—루이스(Ricardian-Lewis)의 고정된 生存賃金

이 도입된 二部門 模型 또는 三部門 模型, 部門間 고정된 交易條件 模型, 그리고 多部門 産業 레온티에프-스라파(Leonieff-Sraffa)模型들이 中·長期 범주에 속한다. 마지막 章에서는 잘 알려진 投資 결정기준과 잠재비율(shadow rate)계산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논평이 적절할 것이다.

50년대와 60년대의 雄大한 動學은 너무 단순한 경향이 있었다. 한편, 70년대의 이론들은 너무 다양해서 중심적인 주제를 갖지 못했다. 테일러의 시도는 비록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개발도상국가를 대상으로 한 중요 이론적인 접근들을 가장 잘 종합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넓은 의미로 볼 때, 開發經濟學은 貧國의 經濟學과 관련되어진다. 동시에 開發經濟學의 價値를 이 學問의 수명에 의해 판단해서는 안 된다. 테일러가 말했듯이, 이 分野는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에 쓸모없는 학문으로 변하는 것에 의해서만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이기도 하다. 즉, 1人當 所得水準이 2,000달러 또는 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貧困하다고 할 수 없는 世界에서는 開發經濟學은 불필요한 것일지도 모른다.

參 考 文 獻

- [1] Adelman, Irma and Cynthia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3.
- [2] Ahluwalia, Montek, "Dimensions of the Problem" in Hollis Chenery, et al., eds., *Redistribution with Growth*,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pp. 3-37.
- [3] Atkinson, A.B., *The Economics of Inequality*, Oxford, Clarendon Press, 1976.
- [4] Bauer, P., *Dissent on Development: Studies and Debates in Development Economics*,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2.
- [5] Baumol, William J., *Economic Dynamics*, 3rd ed., London, MacMillan Company, 1971.
- [6] Bhagwati, J.D., "What Have We Learnt?" in *Wealth in Poverty* (Vol. 1) and *National Economy in International Setting* (Vol. 2), in Gene Grossman, ed., *Essays in Development Economics*, Cambridge, Mass, MIT Press, Spring 1985.
- [7]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Faletto, E., *Dependency and Development in Latin Americ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9.
- [8] Cardoso, Fernando Henrique, and Faletto, E., "The Originality of a Copy: CEPAL and the Idea of Development," *CEPAL Review* (second half, 1977),

- U.N. Commission for Latin America, UN Publication E. 77.11.G.5. pp.7~40.
- [9] Chenery, Hollis, Ahluwalia, M., Bell, C., Duoly, J., and Jolly, R., *Redistribution with Growth*,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74.
 - [10] Chenery, Hollis, "The Role of Industrialization in Development Progra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45 (1955), pp.40-57.
 - [11] Chenery, Hollis, and Syrquin, Moises, *Patterns of Development, 1950~197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5.
 - [12] Fei, J.C. and Ranis, G. *Development of the Labor Surplus Economy: Theory and Practice*, Homewood, IL. Irwin, 1964.
 - [13] Fields, Gary S., *Poverty, Inequality and Development*,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0.
 - [14] Findlay, Ronald, "On W. Arthur Lewis' Contributions to Economics," *Scandinavian Journal of Economics*, Vol. 82 (1980), pp.62-79.
 - [15] Frank, Andre Gunder, "The Development of Underdevelopment," in James D. Cockcroft, et al., eds., *Dependence and Underdevelopment: Latin America's Political Economy*, Garden City, N.Y., Anchor Books, 1972, pp.3-18.
 - [16] Furtado, Celso, "The Concept of External Dependence in the Study of Underdevelopment," in Charles K. Wilber, ed., pp.118-123,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1973, pp.118-123.
 - [17] Hirschman, Albert O., "The Rise and Decline of Development Economics," in *Essays in Trespass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18] ILO, *The Basic Needs Approach to Development*, 1977.
 - [19] Kuznets, Simon,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ch 1955, pp.1-28.
 - [20] Kuznets, Simon,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uary 1963, pp.1-80.
 - [21] Kuznets, Simon, *Modern Economic Growth*,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66.
 - [22] Kwon, Jene K., "A Scheme of Resource Transfers and Its Possible Effect on Growth and Distribution. The Case of Less Developed Economics," *The Korean Economic Review*, Vol. 29, pp.235-262.
 - [23] Kwon, Jene K., "Toward Incentive Transfers, Global Tax and Welfare Indices," *Journal of Economic Development*, Vol. 8 (1983), pp.71-88.
 - [24] Lewis, W. Arthur, *The Principles of Economic Planning*, London, 1950.
 - [25] Lewis, W. Arthur,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

- bor," *Manchester School*, Vol. 22, (1954), pp.139-191.
- [26] Lewis, W. Arthur,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Homewood, IL., Irwin, 1955.
- [27] Lewis, W. Arthur, *Aspects of Tropical Trade, 1888~1965*, The Wicksell Lectures, Stockholm, Almquist and Wicksell, 1969.
- [28] Lewis, W. Arthur, "The State of Development Theory,"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4, No. 1(1984), pp.1-10.
- [29] Lydall, Harold B., "Income Distribution during the process of Development," ILO, World Employment Programme Research Working Paper, No. 52 (1977).
- [30] Mandelbaum, Martin K., *The Industrialization of Backward Areas*, Oxford, Blackwell, 1945.
- [31] Morawetz, David, *Twenty-five Years of Economic Development: 1950 to 1975*, Washington, D.C., World Bank, 1977.
- [32] Nurkse, Ragnar, *Problems of Capital Formation in Underdeveloped Countries*, Oxford, Basil Blackwell, 1953.
- [33] Nurkse, Ragnar, *Patterns of Trade and Development*, Wicksell Lectures, Stockholm, Almquist and Wicksell, 1959.
- [34] OECD, *Development Co-operation Review*, Paris, 1982, pp.254-256.
- [35] Papanek, Gustaf F., "Economic Development Theory: The Earnest Search for a Mirage," Michael P. Todaro ed., *The Struggle for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 Longman, 1983.
- [36] Rosenstein-Rodan, Paul, "Problems of the Industrialization of Eastern and South-Eastern Europe," *Economic Journal*, Vol. 53 (1943), pp.202-11.
- [37] Rosenstein-Rodan, Paul, "Programming in Theory and in Italian Practice," in *Investment Criteria and Economic Growth*, Cambridge, M.I.T., Center for International Studies, 1955.
- [38] Rostow, Walt W., *The Stages of Economic Growth*, Cambridge,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0.
- [39] Santos, Theotonio Dos, "The Structure of Dependence," in Charles K. Wilber, ed., *The Political Economy of Development and Underdevelopment*, New York, Random House, 1973.
- [40] Schultz, Theodore W., *Transforming Traditional Agriculture*, New Haven, Yale University, 1964.
- [41] Seers, Dudley, "The Birth, Life and Death of Development Economics," *Development and Change*, Vol. 10, No. 4 (1979), pp.707-717.
- [42] Sen, Amartya, "Development: Which Way Now?," *The Economic Journal*,

Vol. 93 (1983), pp. 745-762.

- [43] Singer, H. W., "The Mechanics of Economic Development," *Indian Economic Review*, reprinted in A.N. Agarwala and A.P. Singh, eds., *The Economics of Underemployment*,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58.
- [44] Srinivasan, T.N., "Development, Poverty and Basic Human Needs: Some Issues," Food Research Institute Studies, 1977.
- [45] Streeten, Paul, "Development Ideas in Historical Perspective", in *Toward a New Strategy for Development*, Rothko Chapel Colloquium, New York, Pergamon Press, 1979.
- [46] Streeten, Paul, Burki, S.J., Mahbub ul Haq, Hicks, N., and Stewart, F., *First Things First: Meeting Basic Needs in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 [47] Taylor, Lance, *Macro Models for Developing Countries*, New York, McGraw-Hill Co., 1979.
- [48] Tinbergen, Jan, *The Design of Development*, Baltimore, Johns Hopkins Press, 1958.

Development Economics, Past, Present and Prospect: A Survey of Literature

Jene K. Kwon*

Summary

Development Economics is a post World War II phenomenon. The 1950's and 1960's were the golden age of Development Economics, but suddenly the subdiscipline found itself in an identity crisis in the 70's and 80's.

To borrow William Baumol's[5] expression, I call some earlier theories of Development Economics "magnificent dynamics." The main focus of the development theories in the 50's and 60's was the industrialization through rapid accumulation of capital and mobilization of underemployed manpower in the rural areas.

Lewis' magnificent idea was set forth in his 1954 article on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y of Labor." Lewis regarded his model as an updated version of the classical growth model.

Though Lewis' model was dominant, Rostow's "take-off" theory which appeared in 1960 captured the imagination of the economic profession and especially that of the policy makers during the golden age.

But these theories of development that focused on how to get investment going were soon complemented by another related problem, that of how much to invest. The main thrust in policy-making was provided by the Harrod-Domar model.

Another notable achievement during this period was the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planning in the development process.

At least the views of the international trade opportunities were far from being optimistic.

Yet by the end of the 1960's it became more and more apparent that the "development" measured by the growth of per capita GNP was not having any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in terms of basic alleviation of critical

* Department of Economics,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poverty.

As the skepticism about the validity of the traditional "trickle down hypothesis" has grown in the 70's, the objective of Development Economics narrowed to "meeting basic human needs."

With the critics of the trickle-down hypothesis, dependency theorists appeared. Dependency theorists have come to attribute a large part of the plight of underdevelopment to the exploitive polici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These economic considerations provide a context for gradually evolving ideas which found expression in the call for a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a new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rich and poor nations.

At about the same time, Development Economics was assaulted from another front, that is, from the neo-classical camps.

The major area of disappointment has been undoubtedly the link between growth and poverty. Kuznets[19], [20] put forward a proposition that the level of per capita GNP is a major determinant of the extent of income inequality in a country. The specific nature of that dependence has come to be known as the inverted-U hypothesis. Consensus seems to tilt toward the proposition that appropriate public policy that is designed for a more equitable distribution of assets at the start of the growth process will, in general, avoid a deterioration in the relative distribution of income.

One of the most striking examples of the failure of the growth with redistribution is the case of Latin America. Therefore the radical views such as the Dependency-Underdevelopment, import substitution-delinkage have proliferated among the Latin American scholars.

Of all the claims and counterclaims that have surfaced over the last quarter century, I would like to cite two most critical areas of concern. The single most serious problem is the lack of integrated models of growth with redistribution. The second problem is the excessive tendency toward the eclectic theorization that occurred in the 70's.

The answers to the questions for the development economists are these: First, up to a certain threshold level of income, say \$2,000 per capita, Development Economics has an important role to play. Beyond that point, the Keynesian-

Neoclassical Synthesis should take over. Second, we are not going to find an unbridgeable gap between Development Economics and the Economics of the Developed.

In the future, the new approach should differ from the theories of the 1950's and 1960's in that it is a multidimensional theory rather than a unicausal model.

The magnificent dynamics of the 1950's and 1960's tended to be a little too simplistic. On the other hand, the theories of 1970's were too diverse to have a central focus. Taylor's attempt offers the best synthesis of theoretical approaches to the analysis of developing countries. The world may not need Development Economics when it is no longer poor as the income of each individual becomes \$2,000 or above.